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요약 및 구조적 성찰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요약 및 구조적 성찰'. 다음 장이 46장이므로 45장으로 보인다. 본문에 482~485쪽 표시가 있고, 481~486쪽 무렵이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책 전체를 이끈 '인격적 말씀 모델'을 다시 꺼내며 시작한다. 인격적 말씀 모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처럼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림에서 출발하는 성경관이다. 이어서 이 모델의 반대편에 선 자유주의 계시관을 짚는다.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 말씀, 사람이라는 세 통로로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1장부터 44장까지 순서대로 되짚는다. 마지막 '구조적 성찰'에서는 전통적인 일반계시·특별계시 구분이 여러 곳에서 어색해진다는 점을 보인다. 그 대안으로 일반계시(상황적)·특별계시(규범적)·실존계시라는 세 관점의 틀을 내놓는다. 요약에서 출발해 계시론을 새로 짜는 제안으로 끝나는 장이다.

📜 절별 정리

📜 1. 출발점: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주님 (1~2장 요약)

프레임의 성경론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 그들과 대화하셨다. 그 대화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의 약속, 자기 삶의 목적을 배웠다. 프레임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말은 짐작에 그치거나, 최악의 경우 바라는 것을 믿는 '소망 성취'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 알려 주는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이라는 것이다. 언약의 주님이란 약속으로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세 특징을 그대로 지닌다. 만물을 움직이는 다스림,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다.

1. 성경론의 출발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2.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짐작이나 바람일 뿐
3.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4. 말씀 = 다스림·권위·임재를 지님
5. 권위 있는 말씀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

> **(이 절에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아담·노아·아브라함 이야기를 묶어서 언급

> **[보충] 창세기 2:16-17**
>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로 명령하신 장면

> **[보충] 창세기 12:1-3**
>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부르심을 말씀하신 장면

📜 2. 반대편: 자율적 이성의 자유주의 계시관 (3~7장 요약)

프레임은 대략 1650년 무렵부터 형성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계시관을 다룬 부분을 정리한다. 그가 보기에 자유주의를 정통과 가르는 기준은 '자율적 이성'이다. 자율적 이성이란 자기 바깥의 어떤 권위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최종 판단자로 삼는 이성이다. 이 출발점에서 자유주의는 성경의 계시관과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결론이다. 프레임은 이 결론의 대가를 분명히 짚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명령을 알 길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설 땅을 잃고 다시 짐작이나 바람으로 돌아간다.

1. 자유주의의 뿌리는 자율적 이성
2. 결론: 하나님은 말로 말씀 못 하신다

4. 신앙의 기초가 사라진다

> **(이 절에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자세한 논증은 3~7장에 있음

📜 3. 말씀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계시의 세 통로 (8~13장 요약)

8~44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에 대한 성경 자체의 견해를 펼친 부분이다. 먼저 8~11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떨어진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은 다스리는 능력, 의미 있는 권위, 인격적 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수단도 이 세 특징을 닮는다(12장). 프레임은 그 수단을 사건, 말씀, 사람의 세 범주로 나누고, 이것이 대체로 다스림, 권위, 임재와 짝을 이룬다고 본다. 첫 범주인 '사건을 통한 계시'(13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일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구속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1.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
2. 계시의 통로: 사건·말씀·사람
3. 대체로 다스림·권위·임재와 짝
4. 사건 계시: 창조·역사·구속사

> **(이 절에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근거는 8~13장 본문에 있음

📜 4. 말씀을 통한 계시: 음성에서 성경까지 (14~32장 요약)

'말씀을 통한 계시'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 곧 입으로 한 말이든 글로 쓴 말이든 그것을 자신의 말씀과 동일시하신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14장). 선지자와 사도를 통한 계시도 있다(15장). 말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늘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기록된

지닌다. 이어 프레임은 성경 전체의 특징을 하나씩 다룬 장들을 나열한다. 영감, 내용, 범위, 무오성, 현상, 난제, 명료성, 필요성, 포괄성, 충족성이다. 각 용어의 풀이는 아래 '용어'에 모았다.

1.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자기 말씀으로
2. 직접 음성, 선지자·사도의 말
3. 기록된 성경도 같은 능력·권위·임재
4. 성경의 특징: 영감·무오·명료·충족 등

> **(이 절에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근거는 14~32장 본문에 있음

> **[보충] 데살로니가전서 2:13**
>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예

> **[보충] 디모데후서 3:16**
>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

📜 5. 원본에서 내 마음까지: 말씀이 오는 여정 (33~41장 요약)

이 부분은 4부 제목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가 직접 가리키는 내용이다. 프레임은 성경이 처음 기록된 원본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정리한다. 손으로 베껴 전하는 필사(33장)에서 시작한다. 이어 번역과 편집(34장), 가르침과 설교(35장), 성례(36장), 신학(37장), 신앙고백·신조·전통(38장)을 거친다. 마지막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일(39장), 해석(40장), 진리에 대한 확신(41장)이다.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여러 활동을 통로로 삼아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이 장은 단계만 나열할 뿐, 각 단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증은 다시 펴지 않는다.

1. 원본에서 마음까지 여러 단계
2. 필사·번역·설교·성례·신학

4. 교회 활동이 말씀의 통로가 된다

> **(이 절에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근거는 33~41장 본문에 있음

> **[보충] 느헤미야 8:8**
> 말씀을 읽고 뜻을 풀어 깨닫게 한 장면

📜 6. 사람을 통한 계시와 계시의 정점 (42~44장 요약)

세 번째 통로는 '사람을 통한 계시'다. 42장은 계시로서의 하나님 자신, 곧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룬다. 성령을 다루다 보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이른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시는 일이다. 프레임은 성경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한다고 본다. 이것을 '자증'이라 한다. 그래도 그 자증을 우리에게 밝혀 주고 참되다고 확신시키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43장은 사람을 계시로 다룬다. 성경 인물, 교회 직분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 신자들이다. 44장은 계시의 정점을 말한다. 말씀이 신자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를 바꾸어, 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1. 사람 계시: 삼위 하나님과 사람들
2.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자증)
3. 성령이 그 증거를 밝히고 확신시킨다
4. 신자도 말씀을 전하는 본이 된다
5. 정점: 말씀이 마음을 바꾸는 것

> **(이 절에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44장 관련 구절은 8절에서 인용됨

> **[보충] 고린도전서 2:12**
>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됨

📜 7. (원문 1절 ①) 일반계시·특별계시 구분이 흔들리는 곳

이제 프레임은 요약을 넘어 '구조적 성찰'로 들어간다. 그는 사건·말씀·사람이라는 자기 구분이 전통적인 일반계시·특별계시 구분을 다시 생각해 볼 이유를 준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일반계시는 세 특징으로 설명되었다. 말보다 사건(자연, 역사)을 통해 오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구원의 길은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계시는 말로 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지며, 구원에 관한 계시로 이해되었다. 프레임은 이 세 기준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를 든다. 첫째, 디킨스의 소설 같은 세속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말로 되어 있어 일반계시에 맞지 않고 구원을 말하지 않아 특별계시에도 맞지 않는다. 둘째, 프레임은 이 책 여러 장(24, 25, 27, 29, 31, 32장)에서 '구원 문제'와 다른 문제를 날카롭게 가르지 않았다. 그러니 특별계시의 세 번째 기준은 적어도 '구원과 그 밖의 문제에 관한 계시'로 고쳐야 한다. 셋째, 더 심각한 문제는 타락 전 에덴의 경우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아직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 이전의 특별계시'라 부르는 이들도 있고, 특별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고 일반계시로 분류하기도 어색하다. 프레임의 진단은 이렇다. 이런 논쟁은 성경 밖에서 만든 신학 개념을 너무 무겁게 다룬 결과다. 그 용어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려는 신학자들의 도구일 뿐이다. 문제를 일으키면 다듬거나 버려도 당황할 일이 아니다.

1. 전통 구분: 통로·대상·내용의 세 기준
2. 디킨스 소설은 어느 쪽에도 안 맞음
3. 성경은 구원 문제만 말하지 않는다
4. 에덴의 말씀은 분류가 어색하다
5. 신학 용어는 도구, 다듬거나 버려도 됨

> **(이 절에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에덴의 말씀은 장절 없이 언급됨

> **[보충] 창세기 2:16-17**
> 타락 전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신 사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같은 용어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 8. (원문 1절 ②) 새 제안: 일반·특별·실존 계시

프레임은 사건·말씀·사람으로 먼저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옛 용어를 지키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로 새로 짜자고 제안한다. 첫째, 일반계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대상 안에 있는 계시이며 '상황적' 관점에 해당한다. 둘째, 특별계시는 사람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 주는 말씀 속 계시이며 '규범적' 관점에 해당한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든 특별계시는 그 둘을 다 포함한다고 덧붙인다. 또 특별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안경', 곧 일반계시를 바로 보고 바로 쓰게 하는 도구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실존계시는 우리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다른 계시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세 가지는 관점적이다. 하나 없이는 나머지 둘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프레임의 관점주의를 계시론에 적용한 것이다.

1. 일반계시 = 모든 대상 속 계시(상황)
2. 특별계시 = 삶의 기준 주는 말씀(규범)
3. 특별계시는 일반계시를 보는 안경
4. 실존계시 = 계시를 내 것으로 삼음
5. 셋은 서로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이사야 53:1**
>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사람 안에 드러나는 계시
>
>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 **마태복음 11:27**
>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만 안다: 인격 안의 계시
>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없느니라

에베소서 1:17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함: 실존계시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 가지 형태의 계시는 다른 두 가지를 갖지 못한다면 나머지 하나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점적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인격적 말씀 모델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처럼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다는 그림에서 출발하는 프레임의 성경관이다.

언약의 주님

약속(언약)으로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다스리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다.

주권적 속성(다스림·권위·임재)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보여 주는 세 특징이다. 만물을 움직이시고,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자율적 이성

자기 바깥의 어떤 권위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진리의 최종 판단자로 삼는 이성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이다.

일반계시(프레임의 재정의)
자연과 역사를 비롯해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대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다.

특별계시(프레임의 재정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 주는 말씀 속 계시로, 일반계시를 바로 보게 하는 '안경'이다.

실존계시
하나님이 우리 인격 안에서 일하셔서 다른 계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계시다.

관점적(관점주의)
같은 실재를 규범·상황·실존이라는 세 각도에서 보되, 어느 하나도 다른 둘 없이는 온전하지 않다고 보는 프레임의 방법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 / 자증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고(자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밝혀 확신시키신다(내적 증거).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으로서 다스림, 권위, 임재를 지닌 인격적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계시는 사건, 말씀, 사람의 세 통로로 오며, 원본에서 우리 마음까지 이르는 긴

- 일반·특별계시 구분은 성경에 없는 도구이고 곳곳에서 어색해지므로 다듬어야 한다.
- 프레임은 일반(상황적)·특별(규범적)·실존 계시가 서로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 관점이라고 제안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1편 ·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